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1월 16일



복음나누기

연중 제2주일(1월 16일)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요한 2,1-11)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1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2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3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4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5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6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7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9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10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11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복음 나누기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요한 2,4)

성모님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잔치 상황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길 청합니다. 지금 우리 자리에서는 무엇을 청하고 싶으신가요?

물독에 물을 채워라 (요한 2,6)

물독에는 물이 채워져야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채워지길 바라십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99도까지는 액체지만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기체가 됩니다. 반대로 1도까지는 액체지만 0도가 되어야 고체가 됩니다. 변화에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완성은 순식간입니다. 마지막 1도를 기다리지 못해 완성을 못 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종들이 마지막 여섯 번째 돌 항아리의 아귀까지 물을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중간에 조금씩 달라지는 조짐이 가끔 보였더라면 얼마나 이해하기 쉬웠을까요.

만일 두 번째 항아리를 채우기 시작했을 때 저 바닥 밑에서 부터 포도주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면 좀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일의 완성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가 봅니다.

물을 채우는 듯 보였지만, 그 종들은 순종과 인내를 하며 마지막 항아리의 아귀까지 채우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채워야 할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때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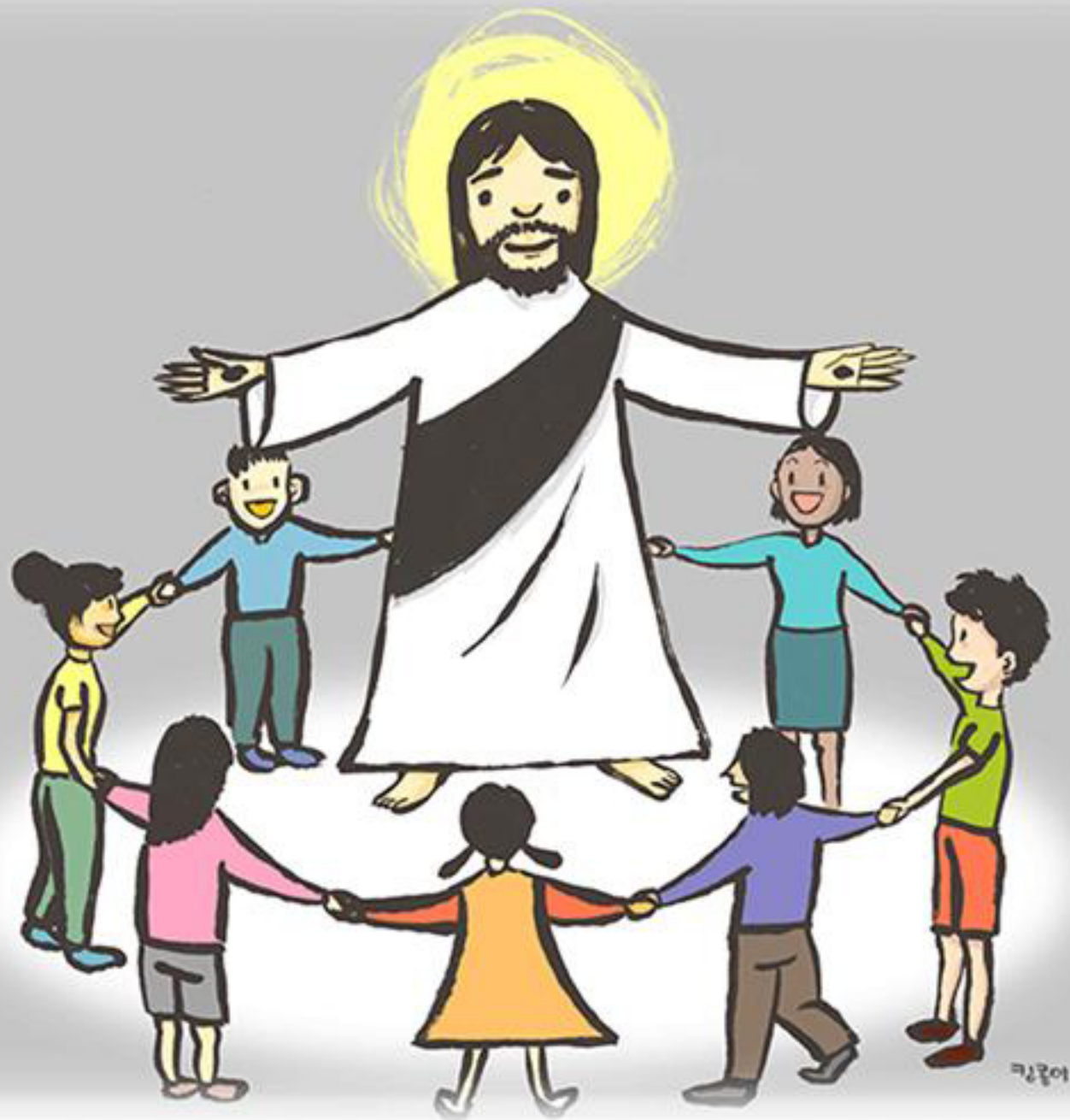
복음 나누기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